

또 안전수칙 무시...비용·시간 줄이려 수압테스트 안했다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 사고 4명 사망·4명 부상

열교환기 청소 후 압력테스트 중 폭발...압력 급속 증가·게이지 불량 추정 편의성 이유 간편 테스트로 대체하고 최소 인원·방호벽 규정 등 안 지켜 안전 관리 소홀이 빚은 人災...광주·전남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

지난 11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제조업체인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도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여수공장에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환경 목표 선포식이 열린 뒤 안전조치 미준수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보여주는 식 행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전남지역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돈·시간에 밀린 안전, 수압테스트 대신 비용 덜 들고 간편한 테스트로=13일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여수시 화지동 여천NCC 여수 3공장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8명의 작업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여천NCC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동원, 정기점검을 위한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교환기 내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압력을 높이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동계 등은 갑작스럽게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인지, 게이지 불량 등이 원인인 것인지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끝나야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관련기관이 제시한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섀미' 관행이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화학설비 압력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가

스 특정제조 시설·기술·관리·정밀안전점검 기술'이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는 게 현장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압력 테스트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물을 이용한 수압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데, 비용과 편의성, 속도 등을 이유로 다른 테스트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교환기 내부에 물을 넣고 테스트를 하면 누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압력도 갑자기 오르지 않아 안전성이 높은 반면, 물을 다시 빼내 청소해야 하는 시간, 이물질 등이 섞여 비용이 발생하는 등 번거로운 점 등으로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압력을 올리는 작업도 규정과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당 열교환기의 상용압력은 9기압으로, 최고허용압력인 대기압의 15.5배 수준보다 더 높은 17.1배 수준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계적으로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대기압의 10배까지 확 올렸다고 2차로 17.1배까지 높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용압력의 50%까지 압력을 올린 뒤 10%씩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기로 진행되는 압력누설 여부 시험의 경우 폭발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고 방호벽 등 적절한 장벽물을 설치하고 뒤에서 결과를 관측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 등은 기밀시험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3명(원청관계자, 현장반장, 작업자)으로 보고 있다. 중간점검시 2m 이상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형태의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계에서는 또 내부 압력 시험 과정에서 일정



민주노동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는 13일 여천 NCC 제3공장 앞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분향소에는 사고로 숨진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압력이 빠지는 압력밸브가 설치됐는지,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 게이지가 2개 이상 설치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잇따라, '보여주기식 안전 선포식 그만'=여천NCC는 석유화학 제조업체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이다. 에틸렌(2020년 228만 5000t 생산), 프로필렌(128만9000t 생산), 스티렌모노머(35만1000t) 등의 석유화학물질을 제조해 20%가량을 수출하는 업체다. 여천NCC공장은 1979년 세워졌으며 947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노동자 수도 1000명에 육박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1년 가스관 이음새 부근이 새지 않도록 보수작업을 하

던 중 수소가스가 폭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08년, 2006년에도 냉매오일 유출과 가스 누출과 4명의 작업자가 다쳤다.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높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9일 여수공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목표를 선포하는가 하면, 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지켜야 할 '세이프티 골든 룰(Safety Golden Rules)'도 만들었다. 하지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대규모 인명 사고를 내면서 '말 뿐'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전남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이 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광주·전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사고당시 안전조치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천NCC 민주노동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부 기계 정비분회장은 "열교환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현장에 머무르던 8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여수=정병호·김민석·김창화 기자 jusbh@

새내기 아빠·예비 신랑 등 참변 '통곡의 빈소'

"아아! 내 아들이" 노모의 곡소리 "아들 낳은 기쁨 엮그제네..." 탄식 우애 깊은 사촌형제 함께 사망도

13일 오전 7시, 여수시 학동 제일병원장례식장은 이른 아침에도 흐느끼는 유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이 곳에는 지난 11일 여천 NCC 제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의 빈소가 마련돼 있었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났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들,

형제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은 여전했다.

숨진 A(40)씨 빈소 앞에 주저앉은 노모의 울음 소리는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채웠다. A씨가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 노모의 아픔은 더 컸다.

노모는 몸을 가늘 정도로 힘겨워하면서도 연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보낸 할 말이 많은 듯 노모는 흐느끼며 혼잣말로 애타게 아들을 찾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열교환기 내부 압력 누수 여부를 시험하는 테스트 현장에 머무르다 변을 당했다.

숨진 노동자 B(42)씨는 지난해 말 태어난 50여 일 된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

했다.

B씨의 유족은 "형이 지난해 말 아들을 낳아 기뻐했는데, 50여일 지난 갓난아이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가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른 사망 노동자 C(30)씨도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들의 슬픔이 컸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은 여수 초도 출신으로 함께 작업반을 꾸려 여수산단 내 설비 관련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사촌, A씨와는 유년시절을 함께한 사이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만큼 친형제만큼이나 사이가 돈독했다는 게 유족들 이야기다.

유족들은 아직 장례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



다. 사고 발생 3일이 지났지만 회사측과 장례 절차, 보상 여부 등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많지만 해

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여천 NCC와의 사고 합의 등이 이뤄져야 발인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천 NCC 제3공장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이날도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여수산단 내 노동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여천 NCC 소

속 직원 D(55)씨도 합동분향소에 영정이 놓였다. /여수=김민석 기자·정병호 기자 mskim@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신축원룸매매(신축)</h3>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2>010-6670-9800</h2>	